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 가해자를 중심으로 -

Variables that Affect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I)

- Focused on inflictor -

부산대학교 아동·소비자·주거학과

강사 김예정

교수 김득성

Dept. of Child · Consumer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Yea-jung Kim

Prof. : Deuk-sung Kim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 and to determine what variables served as predicting indicator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ose who inflicted psychological aggression of the sample were 69%, physical violence 40%, and sexual violence 23%. As the sample indicates,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is a distribringly common phenomenon.
2. Both sexes reciprocally inflicted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physical violence. But males were more likely to inflict sexual violence and injury to their partners.
3. Significant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for both males and females were conflicts in the dating relationship, and a need to control one's partner. Despite the overlap of predictors for males and females, enough differences were found to warrant gender-specific models of dating violence. For males, violence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from their father was an important factor, while for females, school violence was an important factor.

I. 연구의 필요성

가정내 폭력과 학대가 학계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기 시작한 1960년대(미국의 경우임) 이래로 연구자들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을 밝혀내어 그 심각성을 알리고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폭력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일조해왔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전 데이팅단계에 있는 남녀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결혼전 데이팅관계라 하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낭만적인 관계로 생각하여 그러한 관계내에 무슨 폭력이 발생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첫 번째 이유이며, 설사 폭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는 미미할 것이며, 데이팅관계는 미래의 결혼에 대한 언질을 내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를 끝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데이팅관계에서 상당한 비율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팅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1980년대초 Makepeace의 연구였다. Makepeace(1981)는 대학생들의 데이팅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21% 발생했다고 하였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의 20~50%가 데이팅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음이 보고되었다(Bernard & Bernard, 1983; Sigelman, Berry & Wiles, 1984; White & Koss, 1991; Arias et al., 1987; Bergman, 1992; Cate et al., 1982; DeMaris, 1987; Follingstad et al., 1988; Gwartney-Gibbs et al., 1987; Sugarman & Hotaling, 1989; Henton et al., 1983; Makepeace, 1987; Riggs et al., 1990). 최근 Molidor와 Tolman(1998)은 친밀감 형성과 낭만적인 실험의 시간으로서의 데이팅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데이팅은 종종 갈등의 시간이며, 그속에서 파트너들은 분노·질투·혼란의 시기 동안 신체적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데이팅폭력의 형태와 빈도는 부부폭력에서 발견된 결과와 매우 유사함이 드러났다. 이로써 폭력은 기혼 부부만의 양상이 아니며 데이팅 폭력은 가정폭력

연구의 한 분야로서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우리가 데이팅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방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혼이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인 현 시점에서 미혼남녀는 데이팅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간에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즉 데이팅관계동안 발달된 행동유형과 기대는 전수되어 결혼관계를 위한 토대가 되며 데이팅은 개인이 나중의 결혼역할을 사회화하는 맥락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데이팅폭력은 미래의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장을 제공한다(Bernard & Bernard, 1983; Cate et al., 1982; Laner & Thompson, 1982; Roscoe & Benaske, 1985)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전 데이팅관계에서 폭력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중단연구(Makepeace, 1986; Roscoe & Benaske, 1985; Stets & Pirog-Good, 1987)에서 이들이 이후 결혼관계에서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데이팅관계에서 경험된 폭력의 역동성이 결혼관계내로 이동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폭력은 결혼전 관계 해체와 반드시 관련되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커플이 폭력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폭력의 실제에 기여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팅폭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전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혼전 데이팅관계에 있는 미혼남녀들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팅폭력의 가해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팅폭력의 가해는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데이팅폭력의 양상은 심리적 공격·신체적 폭력·성적 폭력과 함께 폭력의 결과인 파트너의 상해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데이팅폭력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는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데이팅폭력의 예방과 개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데이팅폭력 가해의 전반적 경향은 어

- 떠한가?
 연구문제 2. 파트너 상해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데이팅폭력의 정의

데이팅폭력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어 왔다. Puig(1984)는 데이팅폭력을 “데이팅 파트너가 상대방을 향해 가한 신체적 공격행동”이라 정의하였고, Carlson(1987)은 “낭만적 관계에 있는 미혼 파트너간의 폭력”으로 정의하였다. Thompson(1986)은 “상대방을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행동이거나 행동을 하려는 위협”으로 정의하고, 데이팅이나 배우자선택 과정에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동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ugarman & Hotaling, 1989에서 재인용).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공격은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성적 폭력은 ‘데이트강간’으로 명명하며 독자적인 설명모형을 갖는 폭력의 다른 영역으로 간주 (Lurdberg-Love & Geffner, 1989)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팅폭력 연구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팅과정은 ‘미래의 상호작용, 감정적 헌신, 그리고 성적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 쌍(dyadic)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내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데이팅폭력은 “미혼이며 한 쌍의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이 데이팅과정 동안 의도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한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하려고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으로 데이팅폭력을 정의하거나 혹은 신체적 폭력만을 데이팅폭력으로 정의한 것보다 폭

넓은 정의로서 데이팅폭력 현상을 좀더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데이팅폭력 가해의 경향

여러 연구에 걸친 데이팅폭력 가해의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연구자들의 폭력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그에 따른 폭력의 조사범위와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파악하거나 비교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데이팅관계에서 폭력행동의 경향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행동에 관한 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폭력행동의 경험여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된 연구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상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보고된 폭력행동의 경향율은 유사하였다(김예정, 1993).

먼저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연구결과에서 데이트중인 최소한 20%의 미혼남녀에게서 폭력이 발생하였다(Sigelman, Berry, & Wiles, 1984; Arias, Samios, & O’Leary, 1987; Riggs, O’Leary, & Breslin, 1990; White & Koss, 1991). 비록 이러한 폭력의 대부분은 물건던지기/부수기, 밀치기, 움켜잡기, 뺨을 찰짝 때리기가 주를 이룰지라도, 조사된 대학생 표본의 1~7%는 마구 두들겨 패기, 물건으로 때리기, 질식시키기, 성교 강요하기와 같은 심한 형태의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Simons, Lin, & Gerdon, 1998; Riggs & O’Leary, 1996). 특히 최근의 연구(Maura, 1997; Maura & Laura, 1998)에서는 폭력의 발생율이 약 40%정도로 데이팅폭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에 따른 폭력 사용의 경향을 살펴보면 데이팅 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tets, 1992; Straus & Gelles, 1990; Sugarman & Hotaling, 1989; Stets & Henderson, 1991; Molidor & Tolman, 1998). 그러나 사용된 폭력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주먹으로 치

기, 물건으로 때리기, 강제로 성행동하기와 같은 심한 폭력을 많이 사용한 반면, 여성은 손바닥으로 찰싹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꼬집기와 같은 중간 수준의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Molidor & Tolman, 1998).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폭력행동으로 인한 상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가장 심한 폭력경험에서 남성의 거의 90%가 전혀 혹은 거의 상해를 입지 않은 반면에, 여성은 47.8%가 심한 상처를 입었고, 33.6%의 여성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Molidor & Tolman, 1998).

성과 폭력행동에서의 역할(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따른 폭력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놀랍게도 데이팅폭력 사건의 약 80%에서 데이팅 파트너는 폭력행동의 피해자며 동시에 가해자였다고 하였다(White & Koss, 1991). Maura(1997)의 연구에서는 데이팅동안 폭력행동을 가한 적이 있는 경우가 남성의 39%, 여성의 43%였으며, David와 O'Leary(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30%와 여성의 34%였다. Maura와 Laura(1998)의 연구에서 데이팅동안 폭력행동의 피해자인 경우가 남성의 43.2%, 여성의 45.5%였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들을 비교해보면 데이팅동안 폭력행동의 가해자였거나 피해자였던 경험에서 거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폭력행동은 데이팅관계의 남녀사이에 상호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Stets, 1992).

심리적 공격은 대부분의 데이팅관계에서 발생하며, 널리 사용되는 공격형태는 파트너에게 소리지르거나 욕하기와 같은 언어적 공격과 파트너에게 물건을 던지려고 위협하기와 같은 비언어적 공격이 있다(Stets, 1990). 심리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신체적 폭력만큼 심리적 공격이 외상적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뒤이어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였다. 즉 심리적 공격은 즉각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심리적 공격은 신체적 폭력의 '전조자'로 명명되기도 하였다(Stets, 1990). 대학생(Comins, 1984)과 젊은 신혼부부(Murphy & O'Leary, 1989)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 사용 이전에 심리적 공격이 일어

났다(Riggs & O'Leary, 1996에서 재인용).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으로, 데이팅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도 이와 같은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 발생하였다. 데이팅중에 발생하는 성적 폭력은 '데이트 강간'으로 불리는데,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파트너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이 널리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찌기 관심을 받아왔으며 정상적인 데이팅관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cratchfield & Masker, 1989, Cahn & Lloyd, 1996에서 재인용). 그러나 데이트 강간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데이트 강간 사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Ward, Chapman, Cohn, White, & Williams, 1991, Cahn & Lloyd: 1996에서 재인용).

한편 국내연구에서 김예정(1993)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상대방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치거나 걷어차기, 상대방에게 물건 던지기와 같은 공격행동을 한 사람이 36%였고 상대방을 밀거나 움켜잡고 흔들기, 뺨을 때리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와 같은 폭력행동을 한 사람이 24.7%로 나타났다. 또 김용미(1996)는 대학생의 21.3%가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한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가장 빈번히 사용된 폭력의 형태는 밀기, 잡아채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물건던지기, 발로 차기, 주먹으로 때리기, 두들겨 패기의 순으로 피해 또는 가해경험을 보고 하였다.

3.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부부폭력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 데이팅관계에서의 폭력은 최근들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Riggs와 O'Leary(1989)는 데이팅폭력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틀로서 "데이팅폭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집대성 하

였으며, 최근 연구(Riggs & O'Leary, 1996; Maura, 1997; Maura & Laura, 1998)에서 모델의 효용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Riggs와 O'Leary(1989)의 데이팅폭력 모델은 "어떤 사람"이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측하는 폭력성향변인과 "언제" 폭력적이게 되는가를 예측하는 상황변인의 두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성향변인에는 부모간 폭력 목격, 아동기 체벌 경험, 학교 폭력 경험 및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있다.

근원가족에서의 부모간 폭력 목격이나 아동기 체벌 경험은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로 명명될 만큼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팅폭력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다(Bernard & Bernard, 1983; DeMaris, 1987; Sigelman, Berry, & Willes, 1984). 아동의 시각에서 볼 때 부모는 높은 지위를 가지며 유능하고, 힘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은 모방의 대상이 된다. 부모가 부부싸움에서 서로 폭력행동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아동은 폭력행동을 사용해도 괜찮은 행동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모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성장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폭력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아동은 신체적 체벌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 신체적 체벌은 분노나 거절의 잔재 감정을 낳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행동에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동기 체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잘못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무언의 규칙을 가지게 되고 이후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 아동기때 관찰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Simons & Gordon, 1998).

비록 데이팅폭력과 학교 폭력 경험과의 관계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학창시절에 친구와의 신체적 공격경험은 데이팅파트너에 대한 폭력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Riggs & O'Leary, Breslin, 1990). 즉 폭력을 사용해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나중의 데이팅관계에서도 갈등

이 발생했을 때 폭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았다.

파트너에 대한 통제는 "데이팅관계에서 파트너의 생각, 느낌 혹은 행동을 자기방식대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로 정의된다. 파트너를 통제하려는 욕구는 강한데 비하여 다른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Stets & Pirog-Good, 1990; Stets, 1991).

한편 상황변인은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데이팅관계 갈등 및 데이팅기간이 있다.

데이팅관계 갈등은 파트너들이 경험하는 불일치의 빈도와 강도를 말한다. 데이팅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대부분(95%)이 갈등이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3은 해결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였다(Lane & Gwartney-Gibbs, 1985). 물론 모든 갈등이 폭력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팅관계가 갈등이 많고 심각하다면 폭력적이게 될 가능성이 증가된다. Riggs(1986)는 데이팅폭력과 가장 관련있는 단일요인은 관계내 문제수로서 문제가 많을수록 폭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Maura, 1997에서 재인용). 부부폭력에서도 갈등은 폭력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파트너와의 오랜 데이팅기간은 서로를 더 잘 알고 미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를 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공격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부정적일 수 있다. 실제로 데이팅기간이 길수록 관계내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Stets & Pirog-Good, 1987). 따라서 데이팅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데이팅폭력에 노출된 기간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대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5개 대학교(부산대, 부경대, 동의대, 부산해양대, 고신대, 경남대)에 재학 중인 550명의 미혼 남녀 대학생을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데이팅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며 데이팅폭력에 관한 선행연구와 결과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선정조건은 일시적 데이팅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소 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데이팅한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성이 243명으로 59.1%이며, 여성이 168명으로 40.9%를 차지하여 남성이 다소 많이 표집되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21세-23세가 32.9%, 24세-26세가 34.8%로 연령대가 널리 분포하며 27세이상도 7.7%를 차지했다. 대학을 졸업하는 평균 연령이 23-24세인 것을 고려하면 나이든 학생이 많은 셈인데 이는 군복무 등으로 휴학했다 복학한 남학생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교육수준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중졸 이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해 부모간 교육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소규모 자영업 34.6%, 고용직, 기능직, 서비스직 19.4%, 교사, 일반 사무직, 공무원, 은행원 1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무직 64%, 소규모 자영업 19.5% 순으로 나타나 부모가 함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많았다. 가정의 월소득은 101만원에서 200만원 이하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조사대상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별로 윤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 13%였으며 대부분의 가정은 핵가족이었다.

3. 측정 도구

1) 데이팅폭력 척도

데이팅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해 온 측정도구는 Straus의 CTS I 척도이다. CTS I 척도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수(%)	
변인	구 분	父	母
성별	남	243(59.1)	
	여	168(40.9)	
연령	20세이하	101(24.6)	
	21세이상-23세이하	135(32.9)	
	24세이상-26세이하	143(34.8)	
	27세이상	32(7.7)	
가정의 수입	100만원이하	26(6.4)	
	101-200만원이하	204(50.3)	
	201-300만원이하	115(28.4)	
	301만원이상	60(14.8)	
가족 형태	핵 가족	337(81.9)	
	확대가족	54(13.1)	
	편부모가족	19(4.6)	
	계부모가족	1(0.2)	
변인	구 분	父	母
부모 학력	중졸이하	101(24.6)	178(43.4)
	고졸	196(47.8)	193(47.1)
	대졸이상	113(27.5)	39(9.5)
부모 직업	무직, 주부, 정년퇴직자, 연금생활자	49(12.4)	263(64)
	고용직, 기능직, 서비스직, 노무직	77(19.4)	47(11.4)
	소규모자영업	137(34.6)	80(19.5)
	교사, 회사의 일반사무직, 공무원, 은행원	62(15.7)	11(2.7)
	일반전문기술직, 대규모자영업	33(8.3)	7(1.7)
	회사의 부장, 차장, 영관급군인	15(3.8)	1(0.2)
	고위전문직, 정부의 고위관리	16(4.0)	0(0)

1979년 개발된 이래 몇차례 수정되었고 최근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척도의 단점을 수정·보완하여 CTS II를 만들었다. CTS II는 기존 척도에 성적 폭력과 상해 하위척도를 추가하였고, 언어적 폭력척도에 비언어적 폭력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동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하위척도의 문항수를 균형있게 늘임으로써 척도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국내에서 손정영(1997)과 백경임(1998)에 의해 척도의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으나, 몇 문항이 번역상 오류가 있어 척도 문항을 수정하여 척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TSII를 사용해 데이팅과정 동안 파트너에게 가한 폭력의 양과 파트너가 당한 상해정도를 조사하였다. 사용된 하위척도는 심리적 공격 8문항, 신체적 폭력 12문항, 성적 폭력 7문항, 상해 6문항이며, 응답범주는 전혀없음(0), 1년전에 발생(1), 1년에 1번(2), 1년에 2번(3), 1년에 3-5번(4), 1년에 6-10번(5), 1년에 11-20번(6), 1년에 20번 이상(7)의 8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팅 파트너간 폭력이 많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심리적 공격 $\alpha=.74$, 신체적 폭력 $\alpha=.85$, 성적 폭력 $\alpha=.79$, 상해 $\alpha=.80$ 이었다.

2) 부모간 폭력 목격 척도

부모간 폭력 목격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근원가족에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평가하는 4문항의 척도(예: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를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보지 못했다(0), 가끔 보았다(1), 자주 보았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을 많이 목격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63$ 이었다.

3) 아동기 체벌 경험 척도

아동기 체벌 경험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아동기 때 체벌받은 정도를 평가하는 4문항 척도(예: 당신은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자주 맞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까?)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해서 질문하였고, '벨트나 몽둥이'로 맞은 경험을 묻는 문항을 '회초리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0), 가끔 있었다(1), 자주 있었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아버

지로부터의 아동기 체벌 경험은 $\alpha=.80$, 어머니로부터의 아동기 체벌 경험은 $\alpha=.75$ 이었다.

4) 파트너에 대한 통제 척도

파트너에 대한 통제 척도는 Stets(1992, 199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4문항(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파트너가 하도록 만든다, 나는 파트너가 만나는 사람을 규제한다)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0), 거의 없었다(1), 가끔 있었다(2), 자주 있었다(3), 매우 자주 있었다(4)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5$ 이었다.

5) 학교 폭력 경험 척도

학교 폭력 경험 척도는 응답자가 초·중·고등학교에 있을 때 신체적 싸움을 얼마나 했었는지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0), 가끔 있었다(1), 자주 있었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6) 데이팅관계 갈등 척도

데이팅관계 갈등 척도는 데이팅관계에서 파트너간의 갈등을 측정하는 Riggs와 O'Leary(1996)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파트너와 싸우는 빈도와 주로 싸우는 내용의 수(신체적 접촉 및 성문제, 취향이나 관심의 차이를 포함한 11가지)를 묻는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범주는 6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팅관계 갈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는 1997년 12월 9일부터 3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5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50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누락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411부의 질문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window용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

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해서 빈도분포, t-test,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데이팅폭력 가해의 전반적 경향

1) 데이팅폭력 발생 경향

본 대학생 표본에서, 데이팅동안 상대방에게 최소 1번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다소 높았다. 심리적 공격을 한 비율은 전체의 68.6%이었고, 신체적 폭력은 40.4%였으며, 성적 폭력은 22.6%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폭력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심리적 공격은 평균 5.1, 표준편차 6.1로 응답범주 중 '일년에 6-10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평균 3.1, 표준편차 6.8로 응답범주 중 '일년에 2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 폭력은 평균 1.7, 표준편차 4.3으로 응답범주 중 '일년 전에 발생'과 '일년에 1번' 사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traus와 Sweet(1992)이 '제2차 전국가정폭력조사'에서 남성의 74%와 여성의 75%가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공격을 최소한 한 번 이상 행하였다고 하였다.

데이팅폭력 가해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볼 때 성적 폭력을 포함한 데이팅폭력 현상이 대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심리적 공격에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폭력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경험율과 빈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데이팅폭력의 경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심리적 공격이 전체 응답자의

〈표 2〉 데이팅폭력의 경향 (n=411)

변 인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공격	282	69	5.1	6.1
신체적 폭력	166	40	3.1	6.8
성 적 폭력	93	23	1.7	4.3

36%, 신체적 폭력이 24.7%인 결과(김예정, 1993)와 신체적 폭력이 21.3%를 차지한 결과(김용미, 1996)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Maura, 1997; Maura & Laura, 1998)에서 신체적 폭력의 가해경험이 남성의 39%, 여성의 43.3%를 차지한 결과와 Riggs와 O'Leary(1996)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30%와 여자 대학생의 34%가 데이팅폭력한 결과와 비교할 만하다. 데이팅 역사가 길고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때부터 데이팅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데이팅 폭력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팅폭력의 발생경향은 부부간 폭력발생율이 1년간 전체가구의 31.4%를 차지한 결과(김재엽, 1998)보다도 높다.

2) 성별 데이팅폭력 가해의 경향

남성과 여성이 행하는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성과 여성이 파트너에게 사용하는 폭력의 정도는 비슷하였다. 이것은 Sugarman과 Hotaling(1989), Maura와 Laura(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서 남성이 더 폭력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데이팅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은 서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적 폭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이 성적 폭력을 가하였다.

3) 심리적 공격 형태와 빈도

심리적 공격의 가해에서, 남성과 여성 둘다 가장

〈표 3〉 남녀간 데이팅폭력 비교

변 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심리적 공격	남	5.1	6.1	0.3
	여	5.0	6.1	
신체적 폭력	남	3.4	8.0	1.3
	여	2.6	4.3	
성 적 폭력	남	2.4	5.3	5.3*
	여	0.5	1.7	

*p<.001

많이 사용한 공격유형은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하거나 욕하기(남성 42.4%, 여성 42.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고함치거나 날카로운 소리 지르기(남성 42.0%, 여성 32.1%), 화가 나서 방문이나 집앞에서 발을 세계 구르기, 똥똥하거나 못생겼다는 등 외모에 대해 비난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물건부수기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4) 신체적 폭력 형태와 빈도

가장 많이 사용한 신체적 폭력 형태는 남성의 경우 때밀기였으며, 비슷한 비율로 팔을 잡고 흔들거

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가 사용되었고, 움켜잡기, 뺨 때리기, 벽쪽으로 세계 밀어 부치기, 다칠 수 있는 물건 던지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조르기, 칼 사용하기, 발로 심하게 차기와 같은 심한 폭력유형도 사용되었다. 여성의 경우 일단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때밀기와 팔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뺨 때리기, 다칠 수 있는 물건 던지기 순으로 사용하였다. 사용한 신체적 폭력의 빈도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신체적 폭력을 남성이 여성보다 자주 사용하였으며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 입히기와 칼 사용하기와 같은 심

<표 4> 심리적 공격 형태와 빈도

공격 형태	남성		여성		t값
	%	평균	%	평균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하거나 욕하기	42.4	1.1	42.9	1.3	-1.0
고함치거나 날카로운 소리 지르기	42.0	1.1	32.1	1.1	0.7
화가 나서 방문이나 집앞에서 발을 세계 구르기	31.9	0.8	25.6	0.8	0.4
양심품을 말하기	21.4	0.5	22.0	0.5	-0.4
외모에 대해 비난하기	30.9	0.9	26.8	0.9	-0.2
상대방의 물건부수기	11.1	0.2	3.6	0.1	3.2*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0.9	0.2	11.9	0.2	0.1
상대방을 때리려하거나 물건을 던지려고 위협하기	10.7	0.2	7.7	0.2	1.3

*p<.01

<표 5> 신체적 폭력 형태와 빈도

폭력 형태	남성		여성		t값
	%	평균	%	평균	
때밀기	19.8	0.6	25.0	0.8	-1.5
움켜잡기	15.2	0.5	7.4	0.2	3.2**
팔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18.9	0.5	23.8	0.8	-2.0*
다칠 수 있는 물건 던지기	10.3	0.3	9.5	0.2	0.7
뺨 때리기	15.2	0.3	10.1	0.2	1.8
벽쪽으로 세계 밀어부치기	11.5	0.3	3.6	0.1	2.9**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찌르거나 치기	4.5	0.1	1.2	0.02	2.1*
발로 심하게 차기	6.2	0.1	6.0	0.1	0.3
목조르기	6.6	0.2	3.6	0.1	2.3*
두들겨 패기	5.3	0.2	6.0	0.2	0.2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입히기	4.5	1.7	0	-	3.0**
칼 사용하기	5.8	1.3	0	-	3.6***

*p<.05 **p<.01 ***p<.001

각한 형태는 남성만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에서 여성이 가하는 신체적 폭력은 떠밀기, 팔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뺨 때리기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폭력 형태는 약한 강도를 갖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성은 약한 형태의 폭력과 함께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상대방 여성에 대한 상해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Molidor와 Tolman(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의 발생을 면에서는 여성도 남성만큼 폭력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폭력의 심각성과 파트너에 대한 상해가능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성적 폭력 형태와 빈도

남성이 가장 많이 가한 성적 폭력 형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한 것(무력은 사용하지 않음)이었고 다음으로 임신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성관계하는 것이었다.

반면 여성은 임신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성관계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적 폭력을 파트너에게 가하지 않았으며 빈도면에서도 작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적 폭력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남녀 대학생들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폭력의 형태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심리

적 공격에서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하거나 욕하기, 고함치거나 날카로운 소리 지르기가, 신체적 폭력에서는 떠밀기, 팔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가, 성적 폭력에서는 임신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성관계하기,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 강요하기(무력은 사용하지 않음)가 많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으로 데이팅관계에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폭력 형태는 약한 강도의 폭력이 널리 사용되지만,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 의해 심한 강도의 폭력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조사당시 데이팅관계에서 성적 폭력이 얼마나 일어날까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성적 폭력의 일부 문항은 신체적 폭력보다 발생율이 더 높았다.

6) 파트너의 상해정도

본인이 파트너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응답자(411명)중 44명으로 10.7%를 차지하였다. 상해 형태별로 살펴보면 여성파트너는 싸움으로 뼈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가 9.1%로 가장 많았고, 싸우다 다쳐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싸움으로 그 다음날까지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가 각각 6.6%였으며 싸우다 다쳐 약국이나 병원에 갔다가 4.1%순으로 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파트너는 싸움으로 뼈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가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싸우다가 뼈가 부러졌다가 1.2%를 차지하였다.

이상에서, 여성파트너가 남성파트너보다 상해를

〈표 6〉 성적 폭력 형태와 빈도

폭 력 형 태	남 성		여 성		t값
	%	평균	%	평균	
임신가능성을 생각치 않고 성관계하기	17.7	0.72	10.1	0.42	1.9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 강요했지만 무력은 사용하지 않음	24.3	0.80	1.8	0.05	6.8**
구강·항문성교를 강요했지만 무력은 사용하지 않음	7.0	0.25	0.6	0.01	3.5**
성관계 하기 위해 위협하기	6.6	0.17	0.6	0.01	2.9
성관계 갖기 위해 무력 사용	6.2	1.56	0	0	3.6**
구강·항문성교 위해 위협하기	4.9	0.19	0.6	0.01	2.9*
구강·항문성교 위해 무력 사용	5.3	0.16	0.6	0.01	3.2*

*p<.01 **p<.001

<표 7> 상해정도

상 해 형 태	남성파트너		여성파트너		t값
	%	평균	%	평균	
싸움으로 뼈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생김	6.5	0.18	9.1	0.25	1.0
싸움으로 다음날까지 신체적 고통을 겪음	0.6	0.01	6.6	0.21	3.1*
싸움중에 머리를 맞아 쓰러짐	0	0	3.3	0.10	2.8*
싸우다 다쳐 약국이나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음	0.6	0.01	6.6	0.19	3.1**
싸우다 다쳐 약국이나 병원에 감	0.6	0.01	4.1	0.11	2.3*
싸우다가 뼈가 부러짐	1.2	0.02	3.7	0.09	2.5

*p<.01 **p<.001

더 많이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표 5, 표 6>의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형태와 빈도에서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팅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50%와 남성의 약 18%가 상해를 입었으며 이들 중 약 80%의 여성이 심한 상해(수술이 요구되는 절단이나 뼈가 부러짐)를 입은 반면에 약 2%의 남성만이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는 Makepeace(1986)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3.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간 폭력 목적, 아동기 체벌 경험(아버지·어머니로부터), 학교 폭력 경험, 파트너에 대한 통제, 데이팅관계 갈등, 데이팅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데이팅폭력(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우선 남녀별로 상관관계를 보았다. 그 결과 상관관이 유의한 변인만 선택하여 단계적 변인 선택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의 선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잔차의 정규성을 Dubin-Watson 통계량을 이용해 검토하였고, 성별로 독립변인들간의 다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 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 고유값(Eigenvalue), 조건지표(Condition number)를 검토한 결과¹⁾ 다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심리적 공격의 가해에는 데이팅관계 갈등,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파트너에 대한 통제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이 많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여성파트너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였다.

남성의 신체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데이팅관계 갈등,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파트너에 대한 통제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여성파트너에게 성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심리적 공격의 가해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데이팅관계 갈등, 파트너에 대한 통제, 데이팅기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데이팅기간이 길수록 남성파트너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였다.

여성의 신체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남성과 여성의 중다회귀모형의 DW값은 1.8-2.1로 2에 가까와 잔차가 정규성을 따른다고 보았다. 다공선성 검증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는 0.8-0.9로 기준(0.1이상)이 충족되었으며, 고유값은 0.1-3.7로 기준(0.01이상)을 충족하였고, 조건지표는 1-5로 기준(100이하)를 충족하였다.

<표 8>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411, 위:남성, 아래:여성)

	1	2	3	4	5	6	7	8	9	10
1. 부모간 폭력 목격	-									
2.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18** .28***	-								
3. 어머니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16* .05	.32*** .38***	-							
4. 파트너에 대한 통제	.16* .03	.02 .08	.12 -.07	- -						
5. 학교 폭력 경험	.21** .11	.18** .22**	.16* .07	.03 .09	- -					
6. 데이팅관계 갈등	.12 .08	.01 .07	.06 -.01	.46*** .44***	.06 -.03	- -				
7. 데이팅 기간	-.03 -.10	-.10 -.05	-.12 -.13	.10 .18*	-.05 -.14	.08 .04	- -			
8. 심리적 공격	.22*** -.05	.25*** .05	.20** .03	.32*** .36***	.11 .10	.41*** .40***	.06 .22**	- -		
9. 신체적 폭력	.20** -.04	.18** .11	.10 -.06	.17** .28***	.09 .18*	.27*** .27***	.12 .13	.65*** .61***	- -	
10. 성적 폭력	.13 -.01	.04 .04	.09 -.04	.19** .08	.08 .20**	.11 .05	.01 -.11	.54*** .10	.63*** .34***	- -

*p<.05 **p<.01 ***p<.001

<표 9>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 변인	성별 독립 변인	남 성			여 성				
		독립 변인	b	β	R ²	독립 변인	b	β	R ²
심리적 공격	데이팅관계 갈등		0.85	0.32***	.26***	데이팅관계 갈등	0.72	0.31***	.22***
	파트너에 대한 통제		0.89	0.22***		파트너에 대한 통제	0.38	0.19*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0.31	0.16**		데이팅기간	0.06	0.16*	
신체적 폭력	데이팅관계 갈등		0.87	0.25***	.12***	데이팅관계 갈등	0.33	0.20*	.13***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0.72	0.14*		파트너에 대한 통제	0.25	0.17*	
						학교 폭력 경험	0.75	0.16*	
성적 폭력	파트너에 대한 통제		0.24	0.18**	.04***	학교 폭력 경험	0.14	0.20**	.04**

*p<.05 **p<.01 ***p<.001

은 데이팅관계 갈등, 파트너에 대한 통제, 학교 폭력 경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초·중·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남성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여성의 성적 폭력의 가해에는 학교 폭력 경험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초·중·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파트너에게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데이팅관계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남녀 모두 데이팅폭력 가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Lane과 Gwartney-Gibbs(1985)의 연구에서 대학생 표본의 95% 이상이 데이팅관계에서 여러 유형의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들 중 약 1/3이 폭력을 사용하였다. Riggs와 O'Leary(1989)은 데이팅관계 갈등 변인이 "데이팅폭력 모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후속연구(1996)에서 데이팅관계 갈등이 남성과 여성의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Maura(199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많을수록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도 진행중인 갈등이 많을수록 폭력이 많이 발생하였다(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파트너에 대한 통제도 남녀의 데이팅폭력 가해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남성의 경우 심리적 공격과 성적 폭력에, 여성의 경우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통제는 파트너와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며 여러 방법을 사용해 파트너에 통제를 가하게 되는데 시도된 방법들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최후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심각한 관계일수록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즉 폭력은 파트너에 대한 통제를 재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Cate et al., 1982; Laner & Thompson, 1982; Henton et al., 1983). Stets와 Pirog-Good(1987)는 그들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을 많이 사용한 것을 남성이 여성보다 더 통제욕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성별로 파악하는 것이 유용함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은 남성에게만, 데이팅기간과 학교 폭력 경험은 여성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주었다. 남성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이 영향을 준 것은 아버지의 공격적인 행동을 남성의 역할로 동일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igelman 등(198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은 영향이 없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주 훈육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경험은 있을 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Gwartney-Gibbs et al., 1987; Foo & Margolin, 1995)와는 반대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폭력의 세대간 전달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아동기때 부모로부터 체벌 당하는 것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보다 미래의 폭력 사용을 예측하는데 더 영향적이라고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학습이론에 경험적 지지를 제공하며 나아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성 효과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남성의 경우 데이팅폭력은 근원가족의 폭력 경험과 부부폭력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학교 폭력 경험과 데이팅기간이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 학교 폭력 경험은 별로 연구되지 않았고 Maura(1997)의 연구에서는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경험이 여성의 데이팅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학교 폭력 경험이 어떻게 여성의 데이팅폭력 사용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tets와 Pirog-Good(1987)는 데이팅기간이 길수록 남녀 모두 폭력 사용이 증가함을 발견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폭력 사용에만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연구가 살펴본 폭력성향 변인과 상황변인은 성별로 영향력을 달리 하여 데이팅폭력을 가할 위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데이팅관계에서 폭력 가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데이팅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 가해의 경향은 심리적 공격이 69%, 신체적 폭력이 40%, 성적 폭력이 23%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대학생들은 서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주고 받으나, 성적 폭력과 파트너 상해는 남성이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은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이 많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였고,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부모간 폭력 목격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성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였다. 여성은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데이팅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였고,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초·중·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였으며, 초·중·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데이팅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 사이에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이 상당히 퍼져 있으므로 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데이팅관계의 폭력을 막고 비폭력적인 데이팅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하겠다. 남녀 모두 데이팅관계 갈등과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파트너에게 폭력을 통한 통제를 자제하면서 파트너와 친밀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폭력적인 근원

가족은 폭력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원가족의 폭력 경험의 장기적인 부적 효과를 인식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끝으로 친밀한 데이팅관계는 프리이버시, 정서적 관여, 상대에 대한 영향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부부관계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며 데이팅폭력은 미래의 부부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데이팅폭력의 예방은 부부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팅폭력의 피해경험에 대해서 조사함이 요구되며, 남성과 여성의 데이팅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데이팅폭력 연구를 정교화시켜야겠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데이팅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팅폭력이 아동기의 근원가족 폭력 경험과 부부폭력의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재엽(1998). 한국가정의 폭력 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사회복지학회 제4회 학술 세미나 자료집.
- 2) 김예정(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대학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14(1).
- 4) 백경임(1998). CTS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대한가정 학회지, 36권 2호.
- 5)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 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남편의 갈등대처 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 6) Arias, I., Samios, M., & O'Leary, K.D.(1987).

-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 of Interpersonal Violence*, 2, 82-90.
- 7)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General Learning Press.
 - 8) Bergman, L.(1992).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Social Work*, 37(1), 21-27.
 - 9) Bernard, M.L., & Bernard, J.L.(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283-286.
 - 10) Cahn, D.D., & Lloyd, S.A.(1996). Family Violenc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SAGE Publications.
 - 11) Cate, R.M., Henton, J.M., Koval, J.E., Christopher, F.S., & Lloyd, S.A.(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 of Family Issues*, 3, 79-90.
 - 12) DeMaris, A.(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 of Family Issues*, 8, 291-305.
 - 13) Follingstad, D.R., Rutledge, L.L., Polek, D.S., & McNeill-Hawkins, K.(1988). Factors associated with patterns of dating violence toward college women, *J. of Family Violence*, 3, 169-182.
 - 14) Foo, L., & Margolin, G.(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 of Family Violence*, vol.10, no4.
 - 15) Gwartney-Gibbs, P.A., & Stockard, J., & Bohmer, S.(1987). Learning courtship aggression: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36, 276-282.
 - 16) Henton, J.M., Cate, R.M., Koval, J.E., Lloyd, S.A., & Christopher, F.S.(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 of Family Issues*, 4, 467-482.
 - 17) Lane, K.D., & Gwartney-Gibbs, P.A.(1985). Violence in the context of dating and sex, *J. of Family Issues*, 6, 45-59.
 - 18) Laner, M.R., & Thompson, J.(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 couples, *Deviant Behavior*, 3, 229-244.
 - 19) MacEwen, K.E., & Barling, J.(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 of Family Violence*, Vol.3, No1.
 - 20) Makepeace, J.M.(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21) _____(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22) _____(1987). Social factor and victim-offender difference in courtships violence, *Family Relations*, 36, 87-91.
 - 23) Maura, O'keefe(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 Issue 4.
 - 24) Maura, O'keefe, & Laura, T.(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Vol, 4, Issue 2.
 - 25) Molder, C., & Tolman R. M.(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vol.4, no2, 180-194.
 - 26) Riggs, D.S., & O'Leary, K.D.(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Stets J. E., & Pirog-Good M. 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 27) _____(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1, Issue 4.
 - 28) Riggs, D.S., & O'Leary, K.D., & Breslin, F.C.(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 29) Roscoe, B., & Benaske, N.(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by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34, 419-424.
 - 30) Sigelman, C.K., & Berry, C.J., & Wiles,

- K.A.(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31) Simons, R.L., & Gordon, L.C.(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le dating violence: A prospective stud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67-478.
- 32) Stets, J.E.(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01-514.
- 33) _____(1991).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J. of Family Violence*, 6, 97-113.
- 34) _____(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165-177.
- 35) _____(1993). Control in dating relationship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73-685.
- 36) Stets, J.E., & Pirog-Good, M.A.(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37) _____(1990). Interpersonal control and courtship aggression. *J.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371-394.
- 38)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39) Straus, M.A., Gelles, R. J.(Eds.)(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ress.
- 40) Straus, M.A., Gelles, R. J., Steinments, S. K.(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Doubleday.
- 41)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S., &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42) Straus, M.A., & Sweet, S.(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46-357.
- 43) Sugarman, D.B., & Hotaling, G.T.(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kers. In Stets J. E., & Pirog-Good M. 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 44) White, J.W., & Koss, M.P.(1991). Courtship violence: Incidence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6, 247-256.